“중국의 힘은 총에서 나온다”

달라이라마, 후계자 문제 언급하며 中 견제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에서 인도로 망명한지 60년을 맞이한 달라이라마가 자신의 후계자 문제에 대해 중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했다. 지난 3월 18일 ‘로이터 통신’은 달라이라마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1950년 티베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중국에 저항해 1959년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3.10 민중봉기’가 발생했다. 평화적인 봉기가 무력으로 진압된 후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문화와 자치를 지키기 위해 인도로 망명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는 “중국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나보다 더욱 차기 달라이라마에 관심을 둔다”며 자신의 사후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달라이라마는 “만약 미래에 여기 인도와 같은 자유국가에서 태어난 사람과 중국정부가 선택한 사람, 2명의 달라이라마가 나온다면 중국이 선택한 이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위대한 국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이며 자유가 없다. 따라서 나는 자유가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단언했다.

달라이라마는 “나의 사후에 달라이라마의 역할, 혹은 제도의 존폐는 티베트인들에게 달려있다”며 과반수의 티베트인들이 원할 경우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여부는 올해 인도에서 열릴 티베트불교 지도자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만약 후계자가 나오더라도 그는 정치적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달라이라마는 2001년 자신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티베트 망명정부로 이양한 후 종교적인 책무만을 맡고 있다.

인도 망명 60년 달라이라마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
“중국, 후계자 선출 관여하면
그 누구도 존경하지 않을 것”



인도 망명 60년을 맞은 달라이라마가 인터뷰서 후계자 선출에 관심 갖는 중국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한편 중국정부는 오래전부터 달라이라마를 향해 “승복을 입은 위험한 분리주의자, 하나의 중국을 파괴하려는 도당의 지도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펼쳐왔다. 또한 중국황실이 달라이라마를 책봉해 왔고, 환생제도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달라이라마의 후계자 선정에 참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정부의 공식접촉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망명티베트인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용 달라이라마를 내세워 티베트를 더욱 억압하려는 전략”이라며 중국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1989년에 티베트의 정치적, 종교적 2인자인 판첸라마의 11대 환생자에 대해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환생자를 반대, 자신들이 인정한 소년을 판첸라마로 내세웠다.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환생자와 그 가족은 현재 행방불명이다.

중국정부가 인정한 판첸라마는 현재 친중국 행보를 보이며 인도에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며 “최근 외신기자들이 내가 태어난 고향마을을 방문하려다가 무장경찰에게 제지된 일이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의 힘은 진실에서 비롯되지만 중국의 힘은 총에서 나온다. 단기적으론 총이 더 결정력을 가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실이 힘을 가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日, 고대 소조불 비밀 밝히다

나라현 오카데라(剛寺) 불상 새 복장물 발견

일본 나라현 천년고찰 오카데라(剛寺)의 본존불인 소조여의륜관음좌상의 정밀조사를 통해 고대 소조불에 대한 실마리가 잡혔다. 3월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나라신문’ 등 주요 언론은 최근 정밀조사를 마친 3구의 불상에 대해 보도했다.

나라현에 소재한 오카데라는 7세기 후반에 세워진 진언종 사찰로 본존인 여의륜관음상은 창건 당시에 조성됐다. 높이 4.6m의 일본 최대 조소불상으로 머리 부분은 조성당시 그대로이나 신체는 시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보수돼 약 220년 전에 마지막 보수가 이뤄졌다.

일본 문화청은 2년 전 본존불 광배의 채색에 박탈이 일어나면서 정밀조사와 보수를 결정했다. 동시에 협시불인 부동명왕(不動明王)과 애염명왕(愛染明王)상의 정밀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정밀조사와 보수를 진행한 나라국립박물관은 모든 조사와 보수를 마친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수와 정밀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복장물이 발견된 조소여의륜관음좌상(사진 가운데)과 부동명왕상(사진 왼쪽), 애염명왕상(사진 오른쪽) 사진출처=오카데라 페이스북

조사를 담당한 일본문화청 오쿠 타케오 주임연구관은 “소형카메라를 사용해 불상 내부를 조사했다. 가장 오래된 머리 부분의 경우 나무로 격자를 짠 후 흙을 발라 굳힌 것으로 판명됐다”며 고대 조소상 기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본존불 내부에서 높이 60~70㎝ 가량의 금동 아미타 삼존상이 발견됐다. 중존인 아미타여래상의 등에 새겨진 명문에서 220년 전 마지막 보수 당시 삽입된 복장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타케오 연구관은 “오카데라 측의 기록에는 현재 교토박물관에 기탁중인 동제 여의륜관음반가사유상이 원래 본존불의 복장물로 전한다. 그러나 새로운 불상을 복장물로 조성해 넣은 것은 불상의 재탄생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고대의 불상을 새롭게 후대에 전하고자 한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양 협시불상에도 다양한 복장물이 발견됐다. 조성 후 단 한 번도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협시불상들을 CT 촬영한 결과 각각 머리 부분에 9㎝가량의 목탑이 복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애염명왕상은 단전부분에 목제와 금속제의 불상이 복장된 30㎝ 가량의 목탑 2기가 다시 복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카데라 측은 수리완료를 기념,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본존불과 두 협시불에 대한 특별친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자비’ 담아 요리하는 ‘불교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 쟝 필립 씨에르 요리법 ‘화제’

“어느 날 육식 소비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바로 붓다의 ‘연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자비 정신’을 음식에 담아 단번에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프랑스인 불자 요리사, 쟝 필립 씨에르(Jean-Philippe Cyr)의 이야기다. 씨에르는 3월 14일 불교 매체 라이언스 로어(Lion’s roar)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왕자로 태어난) 붓다는 처음에 보호받는 삶을 살았다. 부모는 그가 세상 밖의 고통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이것은 우리가 동물들이 처한 고통을 모를 때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동물 학대에 반대하지만 무슨 일인지 잘 모른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씨에르는 “하지만 사람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자각한다. 그것을 나는 ‘연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육식 요리가 전문이던 씨에르가 채식 요리사로 전향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한 불교명상 수련회에 참가한 것이 계기였다. 이때 사람들의 육식 소비로 동물들이 받는 고통을 직면했다. 이후에도 400인분의 양고기 요리를 했지만 쉽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이에 그는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불교 요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씨에르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 동물의 고통이 수반돼야 할 필요가 없다”며 “‘자비로운’ 요리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맛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씨에르의 요리법은 유튜브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비건 초콜릿칩 팬케이크, 태국식 레드 카레면 같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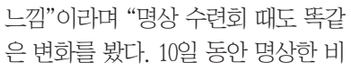
씨에르는 요리하는 모든 과정이 ‘마음챙김’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온도와 시각, 후각 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요리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집중이 필요한데, 이것이 마음챙김명상법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쟝 필립 씨에르는 채식 요리법을 전파하는 불교 요리사로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출처=FVM

씨에르는 요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때도 ‘마음챙김’을 해야 한다며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패스트푸드가 성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맥도날드에 10분도 채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는 두부다. 두부만으로 닭고기나 소고기



씨에르가 만든 태국식 레드 카레면.

식감을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간을 맞출 때는 간장과 된장 등 발효 식품을 주로 사용한다. 서양인의 특성상 약간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기도 한다.

씨에르는 채식 요리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육식 소비를 줄이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식을 안 하면 감자와 당근 같은 것만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현대식 채식 요리법은 매우 발달돼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매우 즐겁다”고 웃어 보였다.

씨에르는 매일 아침 위빠사나 명상을 한다. 그는 “매일 아침 호흡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오랜 명상 훈련을 통해 ‘무의식’마저도 변화한 느낌”이라며 “명상 수련회 때도 똑같은 변화를 봤다. 10일 동안 명상한 비행자, 문제아 등이 매우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 순간 불교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 속)고통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쓴다”며 “우리는 사냥꾼에게도 연민을 가져야 한다. ‘우린 좋고, 그들은 나쁘다’고 선 긋는 것 자체가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육식 여부로)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